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26>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할 뿐이다

古德云 只貴子眼正 不貴汝行履處  
옛 어른께서 이르시기를 “다만 자네의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할 뿐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옛 어른’은 중국 당 시대 위산(771~853) 스님이다. 열다섯에 출가해 스물셋에 백장(720~814) 선사 밑에 가서 공부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방장실에서 밤늦도록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백장 스님이 “화로에 불이 있느냐?”라고 물기에, 대강 화로 속을 뒤지다가 “없다”고 했다. 이에 백장 스님이 직접 화로 속을 뒤져서 작은 불씨 하나를 꺼내 들고 “이게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위산 스님이 여기서 크게 깨었다고 한다. 뒷날 위산 스님과 그의 법을 이은 양산(803~887) 스님의 첫 머리 글자를 따와 위양종이 만들어졌으며, 위산 스님은 중국 선종의 거대 산맥인 오가칠종(五家七宗)의 하나에 해당되는 위양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안목이 바르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왜 행실보다 안목이 바른 것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 뜻은 선림(禪林)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인다(殺佛殺祖)’라는 표현과도 연관이 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는 말뜻은 원래 부처님과 조사스님에 대한 집착을 떨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와 ‘조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를 말하는데, 자신의 공부가 무르익어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이는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자신이 부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나’와 ‘부처님’이란 무명과 탐욕심이 깃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무명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자아의식이 없어야 야비로소 참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무명과 탐욕이 깃든 ‘부처님이란 경계’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런 근거야말로 참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이 경지에 들어가야 바른 안목이 열린다.

## 깨달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넘어야 참부처

이 안목이 열리면 모든 경계가 부처님의 모습 아닌 것이 없다. 이 안목이 열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야말로 중생의 시비 분별을 뛰어넘는 것이니, 멋모르고 행하는 중생들의 거친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다. ‘눈 푸른 남자’는 무심하게 모든 인연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성자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안목이 터지지 않고 나오는 행실은 중생의 행실에 그칠 것이니, 중생의 행실을 따져본들 부처님 공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두를 쟁겨 근본 마음자리를 바로 알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세상을 바로보는 ‘바른 안목’이 우선이요 공부의 핵심이다. ‘행실’로 번역한 행리(行履)는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온 과정을 말하니, 오가며 않고 높은 모든 일상적 삶을 가리킨다.

우리는 보통 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의 공부를 가늠할 수 있다.

옛날 총림에서는 2월 9일, 8월 9일 매년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안거에 동참한 스님들의 숫자와 해제 뒤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을 ‘행리(行履)조사’라고 하였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을 ‘행리장(行履帳)’이라고 하였다. 스님들의 행실이 올바른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평상시 점검하여 수행 생활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계하려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위산 스님도 당시 수행자들이 자주 내려 해져 품이 없이 사는 것을 지켜보다 못해 <위산경>을 저술하여 그들이 ‘도’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도록 촉구했다. 이 책은 산문(散文)과 운문(韻文)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 산문에서는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경계하는 뜻을 상세하게 밝혔다. 첫째 단락에서는 중생의 몸 자체가 큰 우환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둘째 단락에서는 출가자들의 병폐를 크게 꾸짖었으며, 셋째 단락에서는 출가한 사람의 바른 안목을 밝혔고, 넷째 단락에서는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을 보여 주었으며, 다섯째 단락에서는 간접하게 공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선종에서는 이 책과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과 <불유교경(佛遺教經)>을 합하여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하는데 초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우리나라 강원에서 초심자 교재로 쓰이는 처문(處門)에도 이 책이 포함되어 있다.

사산 스님은 말한다. “옛날 양산 스님이 위산 스님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열반경> 40권이 다 마군의 이야기들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양산 스님의 바른 안목이다. 양산 스님이 자신이 살아온 모습에 대하여 묻자 위산이 “다만 자네의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할 뿐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라고 행실을 말해야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수행을 하고자 하면 근본자리를 먼저 단숨에 깨쳐야 한다.”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이판사판’ ‘야단법석’

‘이판사판인데, 해볼 대로 해보라지.’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야단법석 떨지 말고 있어!’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쓰는 ‘이판사판(理判事判)’, 떠들석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때 사용되는 ‘야단법석(野壇法席)’. 그럼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판사판은 불교의 이판승(理判僧)과 사판승(事判僧)에서 나

온 말이지요. 이판승은 불교 교리를 연구하거나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을 말하고, 사판승은 사찰의 산림(山林), 즉 재산관리를 맡아서 원활한 사중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스님을 말합니다. 야단법석의 의미도 짚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야외에 법단을 차려놓고 하는 설법장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들리거나 넓은 공간에 마련되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뜻 깊은 불교용어가 왜 변질된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불교가 배척당했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죠. 때문에 불자들은 과거 불교가 탄압받던 시기에 곡해된 이용어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겠지요?  
김철우 기자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01)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47강 자심여래(自心如來)의 자오자각(自悟自覺)

지난 강의에서, 혜능의 ‘또 다른 사상(四相)론’ 가운데 첫번째 ‘자아의 환상이 없음(無我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두번째는 ‘내 몸이 없음(無人相)’이다. 이 신체란 흙과 물, 불과 바람의 사대(四大)로부터 온 것이며, 이것은 이득과 다시 본래 온 곳으로 흩어질 것들 아닌가. ‘아하, 어리석구나 내 몸 아닌 것을 그토록 애먼글 면했다니...’ 그 연기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중생의 징표가 없음(無衆生相)’이다. 혜능은 이를 ‘생멸심(生滅心)이 없다’로 정리했다. 이 말은 섬세한 유의를 요한다. 마음은 식은 재, 썩은 고목이 아니라서, 계기에 따라 정황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한다. 살아있다면 그 일어나고 멸하는 과정은 당연하고 자연하다. 장자는 이를 숲 속의 바람소리, 그에 응해 일어나는 수많은 구멍과 악기들의 연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혜능이 말하는 ‘생멸심’은 이 자연의 반응과는 심판판전리, 전혀 다른 것이다.

생멸심이란 무엇인가  
요컨대 생멸심이란, 자아에 토대(住)를 두고 추동된(住) 상념과 정념(念)의 출몰을 가리킨다! 그것은 이기적이면서 인위적이

기에, 부자연스러우며, 결국 타자와 교감 없이 냉담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 이해관계에 고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몰라라 한다. 빛진 것은 기억하고, 받은 것은 까맣게 잊는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사전에 까마득히 없다. 수도인은 생멸심의 출몰이 더디고, 상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언필칭 ‘고요하다’고 일컫는다. 수행과 더불어 상념이 즐기고, 말은 느려지고, 행동에는 여유가 있다. 후, 어지러운 상념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금강경>의 표현대로 일래(一來)라, 한번 왔다가 그만 스러질 뿐, 악착같이 들러붙어 있거나, 반복 강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뇌파 실험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보통의 관찰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생멸심은 ‘중생’의 징표이고, 수행과 더불어 이 출몰과 번잡이 점점 가라앉다가, 마침내 이 부류대는 거품이 영원히 멈추는 경지가 온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에서 ‘큰 바다’로 비유한 것이 이것이다. 네번째는 ‘나이런 없음(無壽者相)’이다. 내 몸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영위하는 생명의 길고 짧음이란 도무지 우스운 것이다. 전광

석화(電光石火), 있는 것은 순간의 영원뿐이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 ‘꿈같고, 환영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고, 이슬같고, 번개같고(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가 알리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삶에는, 그렇다, 시간이 없다.

불공(不空)의 반야바라밀  
혜능은 덧붙인다. 사상(四相), 즉 이들 네 가지 ‘이미지’를 깨물고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자아의 환상이요 그림자였음을

## 행복동 사람들

진정한 지혜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dong

몸이 명칭을 떠나 있고, 이미지와 절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무비법상(無非法相), 즉 ‘비법상도 없다’고 말한 것은 ‘반야바라밀의 진리가 그림 없네!’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반야바라밀의 진리가 없다는 말은 진리를 비방 훼손하는 것이다. - 이 반야바라밀의 축복에는 이름이 없다! 이 ‘대승법’에 이름을 붙이거나 어려움 저러쿵 따지다보면, 그 축복은 자신을 떠나 겹겹이만 남는다. 이는 출사 생활과 조화의 차이와 같다. 맞선에 끌려나온 남녀와, 사

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어째서냐, 만약 이들 중생들이 사물에서 이미지(相)를 취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편견과 고착에 빠질 것이다. 진리의 이미지(法相)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것에 고착되는 사람 또한 모종의 자의식의 착각과 편견에 빠진다. 그렇다고 진리가 없다는 판단(非法相)에 빠지는 것도 또한 또 다른 허무의 자의식이니라. 그래서 말하노니, 진리에도 빠지지 말고, 진리 없다는 데도 빠지지 말라.”

달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수행인들은 1) 여래의 삼십이상 중후에 애착 약화하지 않으며, 2) 내가 반야바라밀의 진리를 잘 안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3) 반야바라밀 법을 행하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금강경> 6절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  
이런 뜻에서, 여래는 늘 말하지 않거나, ‘너희들, 비구들이여, 내 말은 다만 뗏목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진리(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허물며 진리 아닌 것임에야...”

(혜능의 해설)  
六祖: 法者是般若波羅蜜法, 非法者生天等法. 般若波羅蜜法, 能令一切衆生過生死大海, 既得過已, 尚不應住. 況生天等法而得樂著.  
“여기 ‘법(法)’이란 반야바라밀의 법이다. ‘비법(非法)’이란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일을 가리킨다. 반야바라밀의 법은 능히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생사(生死)의 대해(大海)를 건너게 한다. 건너 다음에는 그 법에 주(住)하지도 않는데, 허물며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즐거움에 악착하다.”  
- 혜능은 말한다. 진리의 수행이 ‘다음 윤회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적금이나 보함’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 마주친 생사, 그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이다. 한사코 부여잡되, 저 언덕 기슭에 닿았다 싶거든, 그만 버려라. 그래야 계속 길을 갈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 책에 쓰인 글이 곧 너는 아니다



랑에 빠진 남녀의 차이같은 것이라고 하면 비슷할까. 제법 책에 쓰인 글을 자기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금강경> 5절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則爲着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則着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即着我人衆生壽者. 是

(혜능의 해설)  
六祖: 此三相, 並著邪見. 盡是迷人, 不悟經意. 故修行人不得愛著如來三十二相, 不得言我解般若波羅蜜法, 亦不得言不行般若波羅蜜行, 而得成佛.  
“이 셋, 즉 사물의 이미지(相), 진리의 이미지(法相), 그리고 ‘진리란 없다’는 판단(非法相)은 싹된 견해이다. 자기 빠진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며, 경전의 잠 뜻을 깨